

올해 수능 반수생 9만명...역대 최고

의대 열풍·'킬러문항' 배제 영향 광주도 재학생 줄고 재수생 늘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자 중에서 대학에 다니다가 재수하는 '반수생'이 9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광주에서도 재학생 비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반면 졸업생 비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3일 종로학원은 2024학년도 대입 반수생이 8만9642명으로 2011학년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모의고사 접수 통계를 공개한 이래 최고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수생은 6월 모의평가에 접수한 재수생과 수능 응시생과의 수 차이로 추정했다. 반수생은 통상 1학기 휴학이 불가능하고 2학기부터 휴학을 할 수 있어 6월 모의평가에는 대체로 응시하지 않는다.

6월 모의평가에 재수생이 8만8300명 접수했는데 본 수능에는 재수생이 17만7942명 접수해 이 차이로 반수생 수를 추정했다고 종로학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반수생은 수능 전체 접수자(17만7942명) 중 50.4%에 육박한다. 이는 2023학년도(8만1116명)보다 8526명 증가한 수치다.

최근 의대 열풍이 일면서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의대 진학을 위해,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상위권 대학 일반학과로 이동하기 위해 반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종로학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학 중도 탈락 학생도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종로학원은 "향후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된다면 반수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년제 대학의



대입 수능 9월 모의평가를 치르는 광덕고 3학년 학생들. <광주일보 자료사진>

지퇴생이 증가해 중도 탈락한 학생이 10만명대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역에서도 재학생 응시생이 줄고 재수생은 늘어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24학년도 수능 지원자는 1만6089명으로 전년도 대비 631명이 감소했다.

재학생은 1만1112명(69.1%)으로 전년 수능에 비해 1053명이 감소했지만, 졸업생은 4332명(26.9%)으로 277명이 증가했다.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역시 645명(4.0%)으로 145명이 늘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이어 올해 수능은 졸업생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재학생 비율은 역대 수능 중에서 가장 낮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집계결과 2024학년도 수능에 수험생 50만5000명이 지원한 가운데 검정고시생을 포함한 재수생과 이른바 N수생 비중은 28년 만에 최고를 찍었다.

고3 등 재학생은 32만6646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천593명 줄었으나 졸업생은 15만9742명으로 1만7439명 증가했다.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 역시 2712명 늘어난 1만8200명이다.

전체 지원자 중 재학생 비중은 64.7%로 4.2%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졸업생 비중은 3.7%포인트 상승한 31.7%, 검정고시 등은 0.5%포인트 오른 3.6%포인트로 각각 집계됐다.

이 때문에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을 합한 지원자 비율은 35.3%로 1996학년도(37.4%)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강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잡 매칭'

미래모빌리티·스마트전기·호텔조리관광과 신입생 대상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현장 실무형 인재를 꿈꾸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자들의 든든한 디딤돌이 된다.

동강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교내도서관 5층 멀티스튜디오 및 미디어센터에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제2회 잡 매칭 행사' (사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5일까지 진행되는 2024학년도 수시1차 모집에서 동강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동강대는 2024학년도 입시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과(15명) ▲스마트 전기과(30명) ▲호텔조리관광과(25명) 등 3개 계약학과에서 신입생을 뽑는다.

이번 잡 매칭 행사에는 ㈜뉴젠스 최규환 본부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정재환 박사, 좋은인재교육 조익수 대표 등 산업체 전문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했다. 또 미래 모빌리티과

(27곳), 스마트전기과(40곳), 호텔조리관광과(40곳) 등 학과별 약정기업과의 1:1 매칭도 진행됐다. 이밖에도 동강대는 지난 16-27일 2주간 면접이 예정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자들에게 정장 대여 및 차량 등을 서비스한다.

동강대 김명수 산학협력단장은 "잡 매칭을 통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에게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 입학부터 취업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강대는 호남·제주지역 대표로 교육부의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돼 2026년까지 60억 원을 지원 받는다.

계약학과 학생들은 1학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학비 면제 뿐 아니라 취·창업장려금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학년 때는 취업약정 협약을 맺은 중견 및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산업체 재직자 신분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3학기 만에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교육부 2028 대학입시 개편 찾아가는 학부모 정책설명회

교육부가 광주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권역별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찾아가는 학부모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현 중학교 2학년이 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내신 평가 체계를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개편하는 내용의 대입 개편 시안을 지난 10일 발표한 바 있다.

대입 개편 시안 발표 이후 사교육 업체의 '불안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자 교육부는 직접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회를 마련했다.

광주 설명회는 오는 11월 9일 오후 2시 라마다 플라자 광주그랜드 볼룸에서 열린다. 교육부 담당 부처장이 직접 나서 학부모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 참석이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4회 모두 교육부 유튜브(youtube.com/@ourmoetv)에서 생중계된다. 설명회 참가비는 무료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교육청, 학교공동체 회복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



전남교육청이 학교공동체 회복 위한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나주 및 여수 일원에서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간 관계회복 증진과 공동체 회복'을 주제로 분쟁조정 전문가 과정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 분쟁조정 위원과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상담교사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갈등 해결 및 분쟁조정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분쟁조정 시 갈등 전환의 이해 및 유형

분석 ▲분쟁조정자의 의사소통 훈련, 회복적 대화법 ▲분쟁 조정 단계별 훈련 등으로 운영된다.

특히 분쟁조정 상황을 가정한 실습과 탐별 피드백, 사례 나눔 활동을 통해 조정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정애 전남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작은 다름이 큰 갈등으로 커지기 전에 효과적인 분쟁조정을 진행해 평화로운 학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교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회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지스트 교원 창업기업 (주)리셀, '딥테크 팁스' 선정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3년간 15억 지원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교원 창업기업인 (주)리셀이 딥테크 팁스(친환경-에너지 분야)에 최종 선정돼 최근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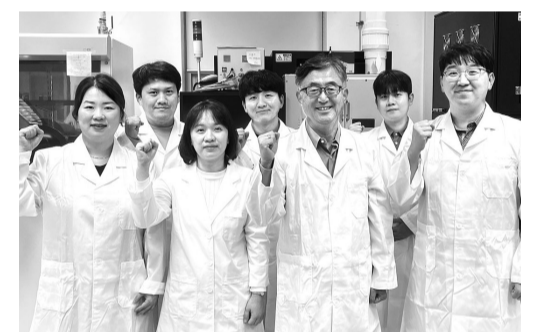
<사진>

딥테크 팁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하나로 정부가 선정한 10대 산업분야에 대한 유망 스타트업을 선별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딥테크 팁스에 선정된 (주)리셀은 GIST 신소재공학부 이광희 교수가 지난 2022년 11월에 창업한 회사로,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 및 모듈과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저조도용, 건물일체형, 모빌리티 일체형, 영농형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 가능한 태양전지 모듈을 제조해 수요처에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딥테크 팁스는 기존 팁스에 비해 지원금 규모가 3배 정도 많은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력·사업성·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 평가 기준이 까다롭기로 알려져 있다. (주)리셀은 3년간(2023년-2026년) 약 15억 원 규모의 R&D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주)리셀은 톨루올 제조 기술을 고도화해 유무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필름을 국내 최초로 양산할 계획이다.

(주)리셀이 개발하려는 유무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필름은 초경량, 투명성, 유연성 등을 기반으로 유연한 필름 형태로 제작 가능하며 시공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활용 분야가 넓다.

이광희 (주)리셀 대표는 "이번 딥테크 팁스 선정은 계기로 태양전지 응용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필름형 유연 태양전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